

# 한·미 FTA가 충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

우 장 명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1. 서론

지난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고 협정결과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농업부문의 협상이 매우 불리하게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는 농업관련단체들이 많다. 이러한 주장들은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농업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하여 양국의 차이가 매우 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준 것이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농산물 시장의 개방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추진을 예상할 때 이러한 논란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할 수 있다.

FTA의 추진이 국가의 이득이라는 입장과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어 있지만 칠레와의 FTA 협상 때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즉, 농업의 입장을 대변하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론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후에 새로 생긴 DDA체제하의 자유무역 기조에 대한 지지계층이 증가하면서 경쟁력 우위의 산업에 특화하자는 논리가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흔히 양국의 무역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효과는 무역창출 효과와 무역전환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직접 효과라 하고, 지역간 성장 격차 등은 간접적 효과 등으로 구별한다. 이런 효과는 지역별 산업구조, 지역특화, 지역간·산업간 연관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주게 된다. 미국은 여러 산업 분야에서, 특히 농업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절대우위를 지닌 강국이다. 따라서 이번 협상타결로 인해 농업부문의 개방이 붓물처럼 터질 것이라고 걱정하는 농업인들이 많다.

그러나 지난 10여년간 쌀 등 주요 품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농산물이 개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향후 DDA 협상이 재개되면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이 완전 개방될 전망이다. 그 속도도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추세에서 농업이 산업으로 존속되어야 할 당위성을 찾고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할 때이다.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는 농업의 자본주의화는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도 파괴한다고 하였다. 미국과의 FTA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일 수도 있다. 산업화의 진전 속에서 극도로 피폐해진 인간과 자연의 치유 능력을 지닌 처방산업인 농업의 몰락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농업이 존속하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국내외 농산물의 구별이 없이 품질의 안전성과 가격을 고려하겠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산되고 있으며, 농업의 위상은 계속 위축되고, 농가인구의 감소로

농업노동력의 부족과 농촌의 공동화가 계속 증가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농업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으며 한·미 FTA는 그 속도를 더욱 빨리 진행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타결은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에 있어서 대부분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한다면, 오직 농업만이 계륜(鷄肋)의 존재인가, 만약에 그러하다면 농업은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버림을 당할 것인가, 선택을 이끌 것인가? 이 논문은 이러한 물음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를 예측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경쟁력이 있는 농업으로의 전환과 희망이 있는 충북농업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논문의 구성은 미국 농업의 현황과 특징, 농업분문의 협상 결과,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 충북농업의 대응방안 등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 II. 미국 농업의 현황과 특징

미국의 국토면적은 약 9억 6천만ha로 한국(남한)의 92배이며 농경지 면적은 3억 8천만ha로 206배에 해당되어 전 국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농가당 평균 경작규모는 178ha로 우리나라 농가 호당 경지면적 1.48ha의 120배에 달한다. 평균 식량작물 자급률은 국내 소비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127% 수준이다. 따라서 주요 곡물이 해외시장에 판매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쌀 53%, 밀 48%, 면화 71%, 대두 29% 등이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27% 수준이고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총인구는 '04년 기준으로 2억9천4백만명, 농가인구는 5백9십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이다. 한국은 농가인구가 3백4십만명으로 전체인구의 7.1%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에서 농업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 2%, 한국 7.8% 수준이다. 미국 국내총생산(GDP) 중 농업 비중은 1% 수준이고 한국에서 농업의 생산 비중은 4.5% 수준이다.

농업부문에서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며 수입국이다. 밀, 옥수수, 콩 등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은 세계 1위여서 농산물 수출은 미국 농업생산물의 수요와 판로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05년 기준으로 수출은 630억달러, 수입은 593억달러여서 37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05년 기준으로 22억달러를 수출하고 119억달러를 수입하여 97억 달러의 적자 상태이다.

미국 농업은 대규모 농업 생산과 영농의 대규모화, 높은 수출의존도가 특징이다. 농업생산 활동은 대농위주로 전체 농가의 10%를 차지하고 소농이 90%의 비중이다. 그러나 총 농산물 생산액은 대농이 67%, 소농은 33%의 비중이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영세소농체제이며 복합영농으로 농가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쌀농사가 기본으로 과수, 채소 및 축산을 겸업하고 있으며 국제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미국은 우리나라 전체 농림축산물 교역액의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05년 기준으로 전체 교역액은 141억달러로 대미 농림축산물 교역액 중 11% 가량이 대미 수출이며 나머지 89%는 대미 수입부문이다. 농림축산물 무역 수지는 19억달러의 적자로 농림축산물 무역수지 적자의 20%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농업정책은 국내보조 정책에 초점을 두어왔는데 미국의 전체 농산물 중 60% 이상에 무세 혹은 5% 이내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체 농산물 세번 중 1.5% 가량만이 100% 이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낙농유제품, 땅콩, 설탕, 담배 등의 관세 수준은 40% 이상으로 qlruy적 높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고율관세로 운영되고 있는 품목이 대부분이다. 평균 농산물 관세는 62% 수준이며, 무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 관세율 구조도 40% 이상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100% 이상의 고관세 품목의 비율이 9.1%로 고추, 마늘, 양파, 참깨, 감귤 등 농가소득에 직결되는 주요 품목들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FTA 타결로 농산물 관세 철폐 및 대폭적인 관세 감축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증대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대부분 미국 농산물이 우리 농산물보다 가격경쟁력이 높다. '04년 기준으로 국내 도매가격과 미국산 수입 가격(CIF)가격을 비교하면 크게는 대두 12.7배, 작게는 오이 1.4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품목 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곡물류는 쌀 3.97, 맥주보리 4.97, 옥수수 4.97, 콩 12.65 등, 축산물류는 쇠고기 2.28, 돼지고기 5.33, 닭고기 2.24 등, 특작류는 땅콩 2.52, 꿀 2.72, 인삼 4.49 등, 그리고 낙농유제품은 탈지분유 3.73, 버터 2.72, 치즈 1.68 등이다.

현행관세 수준으로도 미국의 경쟁력이 높은 품목들은 고추, 사과, 배, 포도, 딸기, 토마토, 오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인삼, 탈지분유, 버터, 치즈 등이다.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여러 절차를 거쳐서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면 미국으로부터 큰 폭의 수입증가가 예상되는 품목들은 쌀, 맥주보리, 옥수수, 콩, 땅콩, 탈지분유, 버터, 오렌지, 포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즈 등이다.

〈표 7〉 미국 농업의 주요 거시 지표

구 분	수 치	구 분	수 치
국토면적(천ha)	962,909	총인구(천명)	293,655
경지면적(천ha)	379,722	농가인구(천명)	5,873
농경지 비중(%)	41.6	농가인구비중(%)	2.0
농업GDP(10억달러)	112	농업인구(백만명)	3
농업차지 GDP비중(%)	1.0	농업인구비중(%)	2.0
전체가구 평균소득(달러)	60,528	농업총현금수취액(백만달러)	258,831
농가평균소득(달러)	81,470	영농현금수취액(백만달러)	235,801
• 농업소득(달러)	14,175	축산업	122,236
• 농외소득(달러)	67,295	농작물	113,565
농외소득 비중(%)	82.6		
총무역액(억달러)	24,008	농산물 수출비율(%)	
• 수출	7,832	• 밀	48
• 수입	16,176	• 쌀	53
• 무역수지	△8,344	• 면화	71
농산물무역액(억달러)	1,223	• 대두	29
• 수출	630	• 옥수수	18
• 수입	593	• 닭고기	26
• 무역수지	47	• 쇠고기	3

자료 : USDA, Agricultural Statistics, 2005.

재인용 : 경기개발연구원, 한미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7. 3. P26.

〈표 8〉 우리나라의 대미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구 분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 출	농림축산물	1,748	1,829	1,759	1,634	1,680	1,532	1,580	1,640	1,860	2,085	2,222
	대 미국	95	108	107	116	126	146	173	214	223	285	281
	%	5.4	5.9	6.1	7.1	7.5	9.5	10.9	13.0	12.0	13.7	12.6
수 입	농림축산물	9,697	10,940	10,231	6,436	7,459	8,526	8,463	9,584	10,221	11,220	11,889
	대 미국	3,506	3,950	3,054	2,104	2,500	2,434	2,371	2,471	2,740	2,745	2,199
	%	36.2	36.1	29.8	32.7	33.5	28.5	28.0	25.8	26.8	24.5	18.5
수 지	농림축산물	-7,949	-9,111	-8,472	-4,802	-5,779	-6,994	-6,883	-7,944	-8,361	-9,135	-9,667
	대 미국	-3,411	-3,842	-2,946	-1,988	-2,374	-2,288	-2,198	-2,257	-2,517	-2,460	-1,918

자료: 농림부, 농림업주요통계, 각 연도,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무역정보(KATI)

〈표 9〉 한·미 농산물 관세구간별 품목수 및 주요 품목 비교

구 분	한 국			미 국		
	해당세번수 (HS 10 단위)	주요 품목		해당세번수 (HS 10 단위)	주요 품목	
관세구간	개수	비율(%)		개수	비율(%)	
0%	29	2.0		402	22.9	
1~10%	183	12.7	식물성유지류	852	48.6	쇠고기, 돼지고기, 담배
10~20%	381	26.5	일부 닭고기, 조류, 묘목	294	16.8	치즈, 과일주스, 초콜릿,
20~30%	249	17.3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77	4.4	닭고기, 포도주
30~40%	147	10.2	화훼류, 유지류, 주류	30	1.7	치즈, 면직류, 잎담배, 아이스크림
40~50%	132	9.2	쇠고기, 신선버섯, 신선과일채소	21	1.2	
50~60%	125	8.7	건조채소, 조제식품, 담배	19	1.1	밀크와 크림, 가당연유, 조제식료품
60~70%	20	1.4	홍차, 담배, 감, 매실	16	0.9	
70~80%	21	1.5	냉동과일, 육류통조림	8	0.5	차조제품, 치즈, 버터, 요구르트, 데어리스프레드
80~90%	12	0.8	종유, 연유, 버터밀크	8	0.5	
90~100%	11	0.8	표고버섯, 고사리, 바나나	3	0.2	
100~200%	18	1.3	양파, 감귤, 분유	12	0.7	땅콩, 유지방, 코코아가루, 변성유장
200~300%	32	2.2	밤, 백삼, 땅콩, 메밀, 고추	0	0	
300~400%	40	2.7	감자, 옥수수, 마늘, 고구마	10	0.6	
400~900%	52	3.6	홍삼, 대두, 매니옥, 참깨	2	0.1	담배 제조원료
계	1,436	100.0		1,754	100.0	

자료: 경기개발연구원, 한미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7. 3. P33.

### III. 한·미 FTA 농업협상 결과

2006년 2월 협상출범 선언 후 1년 2개월 만에 협상이 종결(4.2)되었는데, 농업분과, 위생·검역(SPS) 분과, 원산지·서비스분과 등이 농업 관련 분과였다. 농산물 양허협상은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었다. 수입쿼터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대한 규율 등이 핵심 쟁점이었다. 품목별 양허내용과 양측 입장을 절충하고 수입쿼터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당초 미국이 주장한 내용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수준으로 협상하였고, 농산물 세이프가드를 반영하였다.

수입쿼터 관리방법에 대해 당초 미국측은 선착순 관리방식을 고집했으나, 선착순·수입권 공매·과거 실적 기준 배분 등 다양한 방식과 각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리규범을 차별화하였다. 미국측은 용도제한 금지, 쿼터 물량 배정 시기 등에 관해 엄격한 규범을 요구하였으나, 품목별로 예외규정을 두는 합의를 이끌어내었다.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수입물량이 발동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관세가 부과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후에도 일정 기간 세이프가드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농업위원회의 설치 여부, 기능 등은 추가 협의를하기로 하였다.

위생 및 검역(SPS) 분과에서는 FTA 발효 이후 양국간 SPS 현안에 대한 협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한다. 다만, 동 위원회가 통상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명문규정을 마련하였다. SPS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서 FTA에서 별도 의무를 규정하지 않고 WTO 협정을 준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원산지 분과에서는 신선 농산물 및 민감 농산물에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육류는 제3국에서 수입한 생축을 도축한 경우에도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관세율 적용에만 해당되며 위생·검역 및 원산지 표시는 별개의 문제로 하였다.

서비스 분과는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있는 분야는 개방을 유보하였다. 벼·보리·재배업·육우사육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금지·지분제한, 수의서비스, 유통서비스(육류도매업, 가축시장, 공영도매시장, 공판장, 쿼타 수입) 등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외국인에 대한 차별·제한이 없으나 향후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미래 유보에 포함시켰다. 농지, 쌀 및 인삼·홍삼에 대한 유통서비스, 농촌지역 관광, 인증·검사·등급판정업, 쌀저장업, 농림업부수서비스(쌀 및 보리 도정업, RPC 포함) 등이다.

양허제외(쌀), 계절관세(오렌지 등), 현행 관세·수입쿼터 등의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안을 확보하고 우리가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농산물의 미국 관세는 대부분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상호 입장을 절충해 수입쿼터(TRQ) 관리,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관한 규범을 농업협정문의 내용에 포함시켰다. 현재 협정문 조항별로 세부사항까지 모두 반영한 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일부 문안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 양허안 협상 결과를 보면 쌀을 포함하여 전체 품목의 10% 이상이 예외적 취급을 받거나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을 확보(수입액 기준 25% 이상)하였다.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즉시철폐에서 10년까지 철폐기간을 차별화하였다. 그리고 국내에 영향이 없거나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하기로 하였다.

예외적 취급 품목은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으로 양허를 제외하였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관세율이 높아 관세를 완전히 철폐할 경우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품목은 현행관세 유지 및 일정 물량의 수입 쿼터 제공 등을 하기로 하였다.

민감품목 중 수확·유통 기간이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는 품목은 계절관세로 우리나라 수확·유통 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양국의 주력 품종이나 용도가 구분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부분을 집중·보호하기 위해 세번을 분리하였다. 감자와 대두의 경우, 식용은 현행관세 유지, 가공용은 관세철폐, 수입이 일정 물량 이상으로 급증되면 농산물 셰이프가드를 통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을 보호하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보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표 10〉 주요 관심 품목의 양허 유형 구분

양허 유형	주요 품목
양허제외	쌀
현행관세, 수입쿼터	오렌지(성출하기), 식용 대두, 식용감자, 탈지·전지분유, 연유, 천연꿀
계절관세	포도(성출하기 17년, 비출하기 5년), 스낵용 감자(출하기 7년 유예 후 8년, 비출하기 즉시철폐)
장기철폐, 세번분리	사과(후지 20년, 기타 10년), 배(동양배 20년, 기타 10년)
장기철폐, 셰이프가드	쇠고기(15년), 돼지고기(냉장 2개, 10년), 고추·마늘·양파(15년), 인삼(18년), 보리(15년), 맥주맥·맥아(15년), 전분(10~15년)
15년	호두(미탈각), 밤, 감귤, 송이버섯, 표고버섯, 필터담배
12년	닭고기(냉동가슴살, 날개), 냉동양파, 수박, 보조사료
10년	복숭아, 감, 단감, 감귤주스, 잎담배, 자두
6~9년	신선 딸기(9년), 맥주·아이스크림·살구·팝콘용옥수수·아이스크림(7년), 돼지고기(2014. 1. 1. 기타), 호두(탈각)·옥수수유(6년)
5년 이내	완두콩·감자(냉동)·토마토주스·오렌지주스·위스키·브랜드(5년), 해조류(3년), 아보카도·레몬(2년)
즉시 철폐	오렌지 주스(냉동), 산동물, 화훼류, 커피, 포도주, 밀, 사료용 옥수수, 채유용 대두, 아몬드

주 : 괄호안의 숫자는 관세철폐기간

자료 : 농림부,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시도농정국장 회의자료, 2007. 4.

## Ⅳ.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1. 주요 품목별 영향 추정

충북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한국 농업에 대한 주요 품목별 영향 추정치에 충북지역의 해당 품목이 한국 농업에서 차지하는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비중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한·미 FTA 협상결과가 이행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 수입으로 충북의 농산물 생산액은 발효 후 5년차 275.99억원, 10년차 620.64억원, 15년차 762.06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주요 분석 대상 농산물의 시장개방 이행기간은 7년부터 18년까지 다양하다. 이행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 평균 생산액 감소는 457.3억원이며 감소율은 연 평균 8%의 정도이다.

품목별 파급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분야이다. 쇠고기에 부과되는 40%의 관세가 15년에 걸쳐 폐지되어 수입 가격이 하락하면 5년차 49.65억원, 10년차 208.01억원, 15년차 232.88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돼지고기에 부과되는 22.5~25%의 관세가 7~10년간에 걸쳐 철폐되면, 5년차 83.45억원, 10년차 106.82억원, 15년차 106.82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닭고기는 다리와 날개 부위의 수입 비중이 높는데 5년차(2013년) 33.67억원, 관세 철폐년도인 10년차(2018년)에는 68.72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과수분야이다. 미국산 사과 중 갈리와 후지 품종은 대체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며, 이행 5년차 25.86억원, 10년차 53.25억원, 15년차 99.58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미국산 배의 경우 2023년 19.5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되나 5년차(2013년) 25.87억원, 15년차 112.31억원으로 관세철폐 시점인 17년차(2025년)까지 그 피해액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숭아는 저장기간이 짧아 미국산 복숭아가 국내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적지만, 5년차(2013년) 18.45억원, 관세철폐 시점인 10년차(2018년)에 44.33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셋째, 채소·특작 분야이다. 고추, 마늘, 양파 등의 양념채소류는 현재 관세율이 높아 이행 초기에는 미국산 수입 증가가 적어 생산액 감소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는 5년차 3.01억원, 15년차 10.07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인삼은 ASG가 적용되고 주요 품목의 관세가 1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폐되기 때문에 생산액 감소는 5년차(2013년) 7.92억원, 10년차 90.09억원, 15년차 10.02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두류 중 식용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여 TRQ를 허용하나 국가가 관리하므로 생산액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5년차 1.48억원, 10년차 7.48억원, 15년차 13.40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충북에서 최근 재배가 급증하고 있어 향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표 11〉 한·미 FTA에 따른 충북 주요 품목별 생산액 감소 추정

(단위: 억원)

구 분		연 간			평 균			전국대비 충북지역 비중(%)
		5년차	10년차	15년차	1~5년	6~10년	11~15년	
곡 물	보 리	0.14	0.38	0.86	0.08	0.27	0.62	2.7
	두 류	1.48	7.48	13.40	0.87	5.13	11.31	11.31
	기 타	5.66	12.51	12.51	3.54	9.68	12.51	23.6
	소 계	7.28	20.37	26.77	4.49	15.08	24.44	
채 소 특 작	마 늘	0.35	0.47	0.59	0.26	0.41	0.56	1.2
	양 파	1.55	3.15	4.80	0.80	2.40	4.10	5.0
	고 추	1.11	2.54	4.68	0.59	1.82	3.84	6.5
	과채류	6.43	10.08	10.08	3.74	9.28	10.08	4.2
	인 삼	7.92	9.09	10.02	7.46	8.62	9.79	23.3
	기 타	3.50	3.50	3.50	2.12	3.50	3.50	9.2
	소 계	20.85	28.82	33.66	14.96	26.03	31.86	
과 수	사 과	25.86	53.25	99.58	20.35	38.91	82.30	12.8
	배	3.00	9.18	19.50	1.62	6.30	15.06	6.0
	포 도	25.87	67.91	112.31	13.82	50.72	94.82	14.7
	복숭아	18.45	44.33	44.33	12.15	32.85	44.33	22.5
	기 타	0.60	1.10	1.50	0.37	0.90	1.33	2.3
	소 계	73.78	175.77	277.21	48.31	129.67	237.84	
축 산	쇠고기	49.65	208.01	232.88	27.01	148.67	226.29	7.4
	돼지고기	83.45	106.82	106.82	49.93	104.25	106.82	5.7
	닭고기	33.67	68.72	68.72	20.84	56.79	68.72	6.9
	기 타	7.31	12.13	16.00	5.16	10.23	14.53	8.6
	소 계	174.08	395.68	424.42	102.94	319.94	416.37	
총 계		275.99	620.64	762.06	170.70	490.72	710.51	

주 : 1) 한·미 FTA는 2009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행기간이 15년 이전에 완료되는 품목은 15년까지 최종년도 감소액이 지속된다고 가정.  
 2) 보리는 수매정책이 유지된다고 가정, 식용대두의 TRQ 물량의 일부는 국영무역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전제, 검역문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3) 곡물의 기타는 잡곡(조·수수·옥수수·메밀)의 평균 비중, 채소 특작의 과채류는 수박·참외·딸기·오이·호박·토마토의 평균 비중, 채소·특작의 기타는 참깨·들깨·땅콩의 평균 비중, 과수의 기타는 단감의 비중, 축산의 기타는 마필·산양·면양·시슴·토끼·개·오리·칠면조·거위의 평균 비중임

자료 :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분석(국회 한미FTA 특위, 2007. 4. 30.) 자료를 응용한 추정치



## 2. 충북 농산물의 민감품목 선정

충북 농산물의 민감품목 선정 기준에는 충북 농업 생산 및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 또한 개방 정도와 농업구조조정 여부 등에 따라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민감품목의 선정은 생산자와 소비자 등의 이해당사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대부분 민감품목을 선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들은 부가가치(또는 생산액), 재배면적, 지역집중도, 경쟁력, 시장보호 정도(관세율 등) 자금률,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규모, 품목별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피해액의 비율, 교역가능성(검역 및 교역 비중 등) 등이다.

부가가치는 품목 생산과정에서 새로이 부가된 가치로서 생산액에서 생산에 사용된 중간투입물 비용을 공제한 것이다. 농업부가가치는 노동, 자본, 토지 등 농업에 투하된 본원적 생산요소에 대한 보수이다.

충북의 농림업 생산량에 가격을 곱하여 생산액을 산출하고, 농축산물 소득률을 곱하여 충북의 부가가치 생산액을 추정하였다. 추정 가격은 농산물유통정보(KATI)의 '06년 중품 평균가격으로 원/kg을 적용하였다. '06년 가격을 적용한 이유는 가장 최근 연도의 가격을 적용하여 물가인상률을 감안하고자 한 것이다.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이 크다는 것은 충북 농업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나 부가가치 순위에 의한 품목별 중요도 또는 민감도는 시장개방의 정도에 따른 영향을 추가로 분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완적 지표로 교역가능성(거래 비용 및 검역 등), 경쟁력과 피해 정도, 구조조정 측면, DDA 농업협상 결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감품목의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1차 단계에서 부가가치에 의하여 선정하고, 교역가능성, 경쟁력과 피해정도 구조조정 측면 등을 고려하여 핵심민감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2차 단계에서는 1차에서 선정된 핵심 민감 품목들의 우선 순위를 부가가치액과 교역가능성의 기준을 밝아 정하는 것이다.

〈그림 1〉 민감품목 선정 절차



〈표 12〉 충북의 부가가치 기준 품목별 순위

순 위	품 목	생산액(억원)	부가가치생산액(억원)	비 중	누적비중
1	미곡	4,685.2	2,909.5	17.97%	17.97%
2	인삼	2,779.2	1,795.4	11.09%	29.06%
3	한육우	7,104.8	1,776.2	10.97%	40.03%
4	포도	2,407.8	1,762.5	10.89%	50.92%
5	수박	1,677.3	1,051.6	6.50%	57.41%
6	사과	1,418.3	965.9	5.97%	63.38%
7	복숭아	1,393.2	947.4	5.85%	69.23%
8	고추	1,068.7	538.6	3.33%	72.56%
9	돼지	1,273.3	443.1	2.74%	75.30%
10	배추	638.8	430.6	2.66%	77.96%
11	오리	765.8	382.9	2.37%	80.32%
12	콩	478.0	342.3	2.11%	82.43%
13	젓소	664.8	288.5	1.78%	84.22%
14	옥수수	345.2	251.7	1.55%	85.77%
15	배	358.6	224.9	1.39%	87.16%
16	토마토	377.0	203.2	1.26%	88.42%
17	감자	356.5	199.3	1.23%	89.65%
18	참깨	210.6	178.2	1.10%	90.75%
19	호박	302.0	173.9	1.07%	91.82%
20	무	247.3	165.7	1.02%	92.84%
21	오이	281.6	143.6	0.89%	93.73%
22	고구마	225.0	142.2	0.88%	94.61%
23	파	170.2	117.6	0.73%	95.34%
24	들깨	137.7	116.5	0.72%	96.06%
25	감	154.3	104.6	0.65%	96.70%
26	상추	141.7	86.7	0.54%	97.24%
27	꿀벌	163.2	81.6	0.50%	97.74%
28	딸기	118.2	65.4	0.40%	98.15%
29	마늘	83.2	50.1	0.31%	98.45%
30	달	224.5	48.5	0.30%	98.75%
31	산양	67.1	33.5	0.21%	98.96%
32	수수	34.7	29.4	0.18%	99.14%
33	양배추	39.8	27.3	0.17%	99.31%
34	양파	34.8	23.6	0.15%	99.46%
35	시금치	35.0	18.7	0.12%	99.57%
36	팥	23.8	17.0	0.11%	99.68%
37	사슴	29.3	14.7	0.09%	99.77%
38	땅콩	16.3	11.7	0.07%	99.84%
39	토끼	12.7	6.4	0.04%	99.88%
40	겉보리	7.5	3.9	0.02%	99.90%
41	참외	5.8	3.8	0.02%	99.93%
42	당근	5.9	3.7	0.02%	99.95%
43	메밀	3.1	2.1	0.01%	99.96%
44	녹두	3.0	2.1	0.01%	99.98%
45	생강	5.0	2.0	0.01%	99.99%
46	조	2.5	1.7	0.01%	100.00%
계		30,578.5	16,189.7	100.00%	

충북의 농산물 중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민감 품목은 우선 농축산업의 부가가치액이 10억원 이상, 부가가치 누적 비율은 99.84%로 정하였다. 모두 38개 품목으로 미곡, 인삼, 한육우, 포도, 수박, 사과, 복숭아, 고추, 돼지, 배추, 오리, 콩, 젓소, 옥수수, 배, 토마토, 감자, 참깨, 호박, 무, 오이, 고구마, 파, 들깨, 감, 상추, 꿀벌, 딸기, 마늘, 닭, 산영, 수수, 양배추, 양파, 시금치, 팔, 사슴, 땅콩 등이다.

이러한 품목 중에 운송·저장·선도 유지 등에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교역가능성이 낮은 품목을 배제하는데, 수박, 배추, 토마토, 무, 오이, 호박, 고구마, 딸기, 감자, 파, 상추, 양배추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농산물에 부과되는 관세가 저관세여서 관세감소 및 철폐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이는 품목을 배제하는데 양허 관세율이 30% 이하인 돼지고기, 닭고기(18%)가 해당된다.

그리고 변이계수를 이용하여 농업 부가가치 비중이 높지 않더라도 생산의 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의 검토와 지역집중도는 높지만 경쟁력이 낮아 장기적으로 농업구조조정으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품목 대상을 선정하는데 지급률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민감품목의 선정 시 재배면적과 재배 농가 수 또한 자원의 유희화나 전문화 등도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그리고 재배 농가가 많을수록 시장개방으로 자원의 유희화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전업농일수록, 품목당 재배면적이 넓을수록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다. 품목별로 농가소득이 일정비율 이상(예 5%) 감소하는 농가는 민감도가 더욱 커지게 된다.

한·미 FTA 대비 충북의 민감 품목은 다음과 같이 검토되었다. 초민감품목은 누적비중 65% 이내이며 지역집중도가 높은 품목으로 인삼, 한육우, 포도, 사과 등이다. 고민감품목은 누적비중 85% 이내이면서 교역가능성이 있는 품목으로 복숭아, 고추, 콩, 젓소, 옥수수 등이다. 민감품목은 누적 비중 99% 이내이면서 이미 수입개방이 되었거나 충북에 특화된 품목으로 배, 감, 꿀, 마늘 등이다. 그리고 저민감품목은 위의 유형이외에 품목으로 충북에서 부가가치 생산액이 10억원 이상부터 100억원 이하의 특화도가 높은 품목으로 수수, 사슴, 팔, 닭, 땅콩 등이다.

〈표 13〉 충북의 민간 품목 선정

구 분	품 목
초민감 품목(4)	인삼, 한육우, 포도, 사과
고민감 품목(5)	복숭아, 고추, 콩, 젓소, 옥수수
민감 품목(4)	배, 감, 꿀, 마늘
저민감 품목(5)	수수, 사슴, 팔, 닭, 땅콩
합계 (18품목)	

## V. 충북 농업의 대응과 방안

### 1. 대응 방향

FTA에 대비한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가격과 품질 경쟁력의 제고이다.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품목은 기계화·자동화·규모화 등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가격 경쟁력 제고에 한계가 있는 품목은 식품안전, 친환경, 신선도, 규격, 표준화 등의 우수성을 유지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확대되는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농산물의 생산 단계부터 식탁에 이르기까지 식품의 안전성과 신선도 등을 보장할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는 고품질·친환경 지역농산물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한 것이다.

충북농산물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 품질·유통·홍보 측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고급 품종의 개발 등은 지역농업의 체질 강화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전문화를 통해 시·군 및 권역별 특화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농업의 핵심 성장 동력의 발굴과 지원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젊고 능력이 있는 전문 농업경영 인력의 확보도 중요하다. 농업 경영인 스스로 기술·경영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컨설팅 기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해서는 농업자원 및 비농업자원까지도 포함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의 증가 기회로 활용하여야 한다. 농촌의 깨끗한 환경과 전통문화, 지역특산물, 자연 경관 등의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하여 향토산업 및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시키고, 지역 농촌 내에 농업·제조업·서비스업 등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게 하여 지속적인 농촌사회의 유지와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농촌 공동화의 방지를 위해서 지역농촌의 정주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지역농촌의 복지·교육·의료 여건 개선, 지역개발 및 삶의 질 향상으로 지역농촌의 정주성을 높이는 것이다. 농촌지역에 대한 생활 여건을 개선하여 도시지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농촌지역으로 유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 충북에서 향후 한미 FTA 타결 영향에 민감한 품목을 집중 관리하면서 동태적 경쟁력을 갖는 품목들에게는 시장접근 기회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고부가가치화·차별화 전략으로 충북 농산물을 수입 농산물과 동질적이지 않은 재화로 또는 친환경·고품질 농산물로 차별화 하여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한다. 또한 충북의 농특산물을 미국의 고급 농산물 수요 시장 및 틈새 시장에 공급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치 등 가공식품, 인삼 등 특용작물 등의 농식품 가공산업의 활성화, 계약재배 등에 의한 농산물 수출단지의 육성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확대시켜야 한다.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과 여건 변화를 고려한 지역농정 추진체계 확립이 필요한데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지방농정관리 체계의 개선으로 농정기획 역량을 극대화하고, 상향식

농정추진 방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역농정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농업유관 기관, 농민단체, 농과대학, 농업기술원 등 지역농업관련 주체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 충북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향



〈그림 3〉 농업의 한미 FTA 대응 전략



## 2. 경쟁력 제고 방안

충북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품목을 주로 생산하는 시·군·읍·면별 산지의 경쟁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규모화된 주산지, 공동출하하는 산지의 조직화된 생산자 단체로 하고 품질, 유통, 홍보, 조직 경쟁력을 포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경쟁력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농산물은 시장개척단 및 식품 박람회 등을 통하여 시장접근기회의 확대와 시설의 현대화 지원 등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충북농산물의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감 유지와 청정한 생산기반을 바탕으로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광역 농산물 브랜드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충북 농산물의 브랜드를 소비자에게 인지를 시켜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품목은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표 14〉 경쟁력 수준에 따른 대책 구분

구 분		대 상 품 목	주요 정책
가격경쟁력이 강한 품목		-	○ 경쟁력 제고 대책 - 생산성 제고 대책 - 생산비 절감 대책
가격경쟁력이 약한 품목	가격경쟁력 제고 가능 품목	사과, 배, 포도, 토마토, 양파, 닭고기	○ 경쟁력 제고 대책 - 생산성 제고 대책 - 생산비 절감 대책 ○ 수출촉진 대책 ○ 품질 제고 대책
	가격경쟁력 제고 불가능 품목	대두(식용), 팥(식용), 옥수수(식용), 땅콩, 인삼, 마늘(한지형), 쇠고기, 돼지고기	○ 품질 제고 대책 ○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품질 경쟁력이 약한 품목	대두(가공용), 보리, 고추(가공용)	○ 탈농 및 작목전환 유도 ○ 구조조정 대책 - 경쟁가능계층 선별 육성 ○ 일정자금률 유지를 위한 소득보조 정책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 한미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2007. 3. P141.

축산분야는 고품질과 식품의 안전성으로 토대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친화형 축산을 강화하여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단계의 생산이력제(Traceability)와 가공 및 유통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지역브랜드 관리를 위해 광역 브랜드를 육성한다. 또한 수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수출 관련 농가 및 업체를 적극 지원하는 것이다.

과일분야는 국내외 소비자 수요의 안정적 확보, 고품질 과일을 생산하는 농가들의 수취가격 및 소득 증대를 위해 과일의 품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이는 품질의 향상과 일정 규모의 생산기반을 유지하여 거래교섭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생산기반조성 수확관리 출하관리 마케팅 단계별로 농가와 출하조직별로 전문화하고, 산지유통시설 및 산지유통센터를 이용하여 출하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일정 수준이상의 물량확보와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채소·특작분야는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경쟁력이 있는 산지로 육성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산시설 파종 및 수확 기계화, 시설내 장치화를 통한 노력 절감 수확후 운송, 저장, 선별 포장, 상품화의 연계를 주산지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품질 또는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제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집중지원하고 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지역이나 농가는 작목 대체나 농업이외의 산업(농촌관광, 가공 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곡물분야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농산물 브랜드화와 연계시켜 수입산과 경쟁에서 소비자 선호를 선점하는 차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균일화·표준화가 미진한 지역 브랜드를 강화하기 위해서 광역 브랜드를 육성하고 생산의 규모화와 집중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국회 한미 FTA 특위,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07. 4. 30.
- 농림부, 농업분야 경쟁력 제고 방안, 제7차 대외경제위원회 안건, 2006. 6.
- 농림부, 주요 농정현안보고, 제265회 국회임시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007.
- 농림부, 한미 FTA 농업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 시·도 농정국장 회의자료, 2007.
- 농림부, 한미 FTA 농업분야 대책 방안, 한·미 FTA 특위 보고자료, 2006.
- 농촌진흥청, 2005년도 농축산물소득자료집, 2006.
- 박경·신동호, 한·미 FTA에 따른 충남지역경제 효과와 대책, 충남발전연구원, 2006.
- 박현수, 한·미 FTA 협상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 삼성경제연구소, 2007. 4. 5.
- 이창수·박지현·권오복,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정책연구 05-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 임정빈, 한·미 FTA가 경기도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경기개발연구원, 2007.
- 최세균, 주요 농산물별 파급영향 및 민감 품목 선정 방향, 2006.
- 충청북도, 한·미 FTA 협상타결 대비 후속대책 보고, 2007. 4.
- 충청북도, 한·미 FTA 협상타결에 따른 충북 농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책, 2004. 4.